유망 강소기업 2곳 익산 제3산단 투자

지앤지엔터프라이즈·우일특수정공 협약 체결… 130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28일 익산시청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 ㈜지앤지엔터프라이즈 여상룡 대표, ㈜우일특수정공 강연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익산 제3산단 1만3,728㎡ 부지에 1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우일특수정공 역시 익산 제3산단 8,264㎡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기업 총 160억원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3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1997년 설립하여 20여년 동안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 유통판매를 영위해 오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서울 본사 및 유통·판매 위주의 미주법인과 생산 위주의 중국법인을 두고 있다.

세계 최초 심리스(무봉제) 멀티 아이템으로서 자체 브랜드인 "세컨스킨"은 전국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등 70여 개의 매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올해 3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건실한 기업으로 익산 이전 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내 연매출 1,000억원, 수출 5,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고용규모도 25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천에 소재한 ㈜우일특수정공은 1986년 창업 이래 금속가공 기계부품 제조 전문업체로서 플라스틱사출기 OEM 조립과 정밀부품 가공, 내식·내마모 도금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이다.

이번 익산공장 신설 투자를 통해 LS엠트론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산물량 증대와 부품조립, 임가공, 자체상품화 등 다각적인 사업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증대와 기존 기계가공 및 도금부품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품질확보와 대량 생산 체계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고용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환영사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우리 익산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한다"며, "익산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청소년 승마체험 기회 제공·체력 증진 도모

익산시, 학생승마체험 사업 추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청소년 승마체험 기회 제공과 체력 증진을 위해 2018년 익산 초중고등학생 1,042명에 대해 학생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6년 460명, 2017년 653명, 2018년 1,042명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승마체험은 1명당 10회를 지원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 일반승마체험은 32만원(1회당 3만2,000원, 자부담 9만6,000원), 생활승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는 32만원(1회당 3만2,000원, 자부담 없음), 재활승마(장애학생 대상)는 42만원(1회당 4만2,000원, 자부담 없음)으로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는 3월 2일부터 16일(2주)까지 각 학교별로 희망학생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및 배정해 오는 4월부터는 일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승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승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승마장 4개소에서 실시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승마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료(1명당 2만원)가 포함된 사업비로 지원된다.(일반 70%, 생활, 재활승마 100% 지원)

시 관계자는 "학생승마체험 확대로 잠재적 승마인구를 발굴함으로써 관내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 할 계획"이라며, "우리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승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중적 스포츠로 정착시켜 건전한 레저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새만금 신항 '군산 신항'으로 개칭 해야"

강성옥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세계 무역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명칭변경 필요"

강성옥 군산시장 출마예정자(더불어민주당군산시의원)가 지난 28일 '새만금신항'을 '군산신항'으로 명칭변경을 주장했다.

강 예정자는 새만금 신항과 관련, "군산항은 1899년 5월 개항하여 올해로 119년의 역사가 있는 항구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으로 쌀을 수송하기 위한 수출항으로 주로 이용되었고, 현재는 내항에서 외항으로 항구를 확대 하면서 오랫동안 국제항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금강 하구언이라는 항만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수백억에 이르는 준설비용이 드는 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물류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깊은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새만금에 신항만을 건설 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정자는 또, "전 세계 항구 지도에서 군산이라는 지명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10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축적된 것으로, 그 네이밍의 경제적 가치는 새로운 브랜드와 비교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며, "군산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산신항'으로의 개명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인 만큼 반드시 '군산신항'으로 개칭(改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예정자는 "우리 군산시민은 새만금을 통해 군산만이 아니라 김제, 부안과 함께 더 나아가 전북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왔고, 그러한 취지에서 '군산신항'의 명칭도 '새만금신항'으로 묵인했고,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분할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김제, 부안과 더불어 발전하는 미래를 구상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김제시가 지난 설 연휴기간 김제시 곳곳에 새만금신항 김제시 귀속 주장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지역 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며 "김제시의 이전인수격 억지논리와 전북도의 수수방관에 씁쓸함마저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예정자는, "'새만금신항'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세계물류를 유치하고 더 커다란 세계 무역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군산신항'으로 즉각적인 명칭변경을 해야 한다"며, "결국 '군산신항'은 군산, 김제, 부안을 비롯한 전북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군산시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군산농업,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상담기록부의 입력방식을 일원화해 누적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며, 향후 정책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업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상담소장이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적인 접근으로 실효성을 높이며, 매주 2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업무연찬을 통해 진행사항과 지역농업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과 8월에 군산농업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사업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농민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과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난 제1차 업무연찬을 통해 보여준 상담소장들의 역량을 볼 때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읍면동 농민상담소는 오는 4월까지 기초자료를 보완하고 그 자료에 의한 활성화 방안을 5월중 발표하며 매년 12월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대 나의균 총장 이임식

군산대학교 제 7대 총장인 나의균 총장이 지난 28일 이임식을 갖고 4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다.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개최된 이임식에는 내외 하객 및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나의균 총장은 2014년 3월 취임하여 2018년 2월까지 4년의 임기 동안 군산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교육부대학구조개혁 평가 '최우수대학군'에 선정되었고, '2016년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건축(시공), 토목, 기계, 자동차 등 4개 부문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다 부문 최우수대학이 되었다.

교육부 주관 최대 국책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링크 플러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 풍력발전단지 고급인력양성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고루 선정되며 좋은 성과를 냈다.

2000여개의 가족회사들을 대상으로 분과별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학생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군산대만의 특화된 선순환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활성화시켰으며, 학사제도를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고도화 시키는 등 지역 및 미래산업 수요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나 총장은 임기 중 산학융합공과대학을 신설해 창의형 미래인재를 육성할 첨단 공간도 조성했다. 선진화된 커리큘럼을 정비하며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며 군산대학교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이임식에서 나의균 총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산학협력 및 특성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정하고, 이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나 총장은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처럼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대학발전에 헌신했던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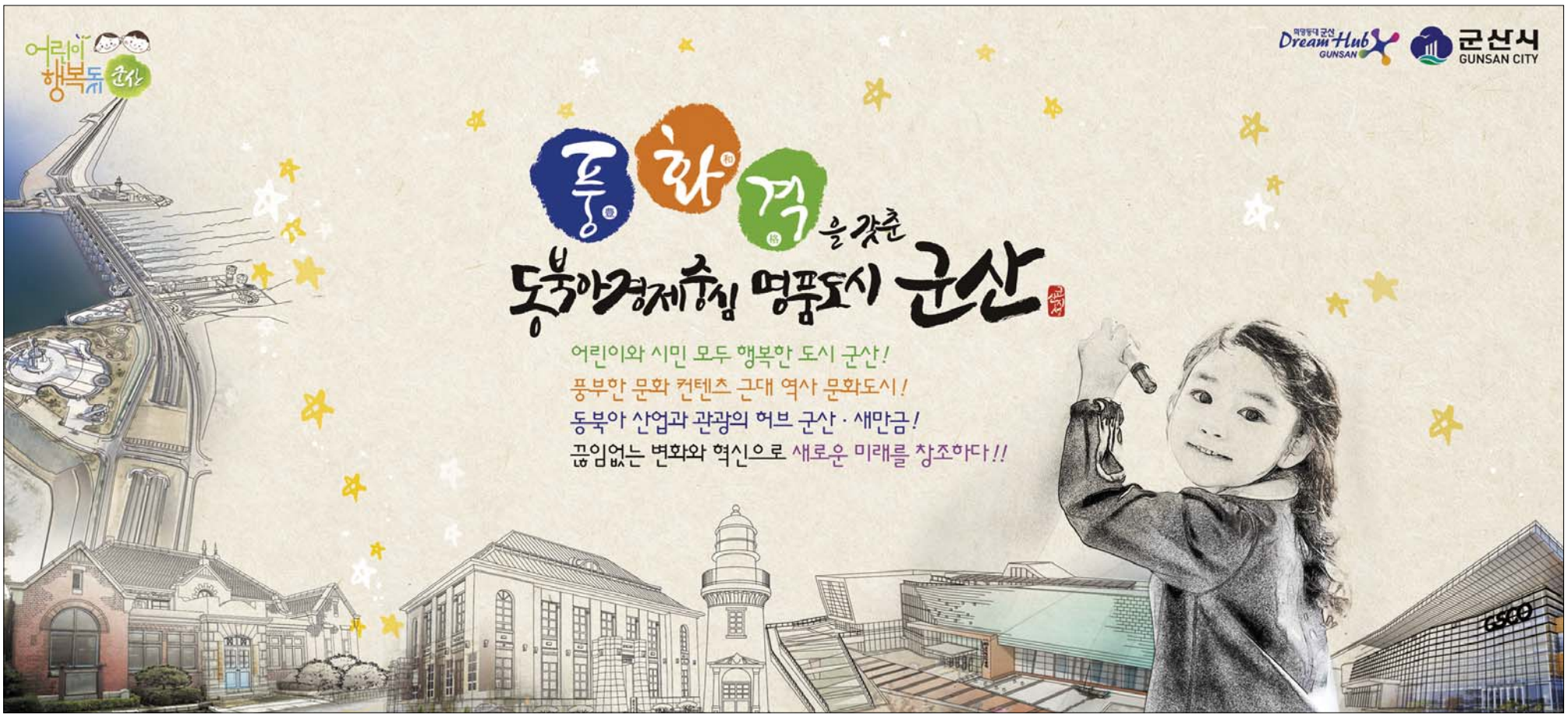
/군산=김판곤기자

전국체전 대비 친절한 익산만들기 협약 체결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지난 28일 익산시청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법인택시 협의회장, 개인택시조합장, 택시산업노동조합 익산지부장, 장애인콜택시 대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장,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친절한 익산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국(장애인)체전 행사기간 우리시를 방문하는 선수와 임원단 그리고 관람객들과 가장 밀접한 택시, 버스, 숙박업, 외식업 대표들이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더욱 친절하고 품격 높은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의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익산시는 숙박업과 외식업체들에게 홍보스티커 4천여 장을 배부 출입문 등에 부착해 전국(장애인)체전을 홍보할 계획이며, 운수업체는 차량용 스티커 부착을 통해 전국체전 붐을 조성하는데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기자